

연속 동반 상승에 성공한 코스피와 코스닥

KOSPI 6,346pt(+0.7%), KOSDAQ 857pt (+0.4%)

① 해외 상황 금리 불안감에 다음주 물가지표 경계감

- 간밤 미국 주식시장 하락(나스닥 -0.3%, S&P500 -0.1%, 다우 -0.1%,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2.9%). 미국-이란 갈등 쉽게 해소되지 않으며 WTI 급등.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4.7% 상회. 수요일 소비자물가 발표 앞둔 경계감에 지수 낙폭은 제한된 흐름. 엔비디아, MS의 자체 AI칩 확대 및 5,000억달러 규모 AI 금융 플랫폼에 대한 투자비 부담 우려에 3% 하락

② 수급 KOSPI 외국인 자금 유입, KOSDAQ엔 개인 자금 유입 = 양대 지수 상승

- KRX KOSPI 현물 기준 개인 -707억, 외국인 +443억, 기관 +305억원 순매수. KOSDAQ은 3거래일 연속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 견인하던 개인투자자 다시 5천억원 이상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 견인

③ 특징업종 실적과 정책이 야기한 테마 상승

- 1) **건설**: 이재명 대통령,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기 착공 및 기반시설 구축 속도전 주문. 금호건설 상한가, 남화토건 상한가, 신원종합개발 +7.6% 2) **반도체 소부장 특히 장비**: 인텔, 대규모 유상증자 통해 200억달러 조달, 2026년 Capex 상향. 파운드리 및 첨단 패키징 투자 확대 방침 재확인하며 글로벌 반도체 장비 투자 사이클 부각. 예스티 +14.1%, 주성엔지니어링 +12.2%, 티에스이 +7.7%

④ 이벤트 시장금리 영향 미칠 물가지표 온다

- 1) 美 7월 CPI(8/12 21:30), PPI(8/13 21:30)

⑤ 상황 코스닥과 전자닉스의 시소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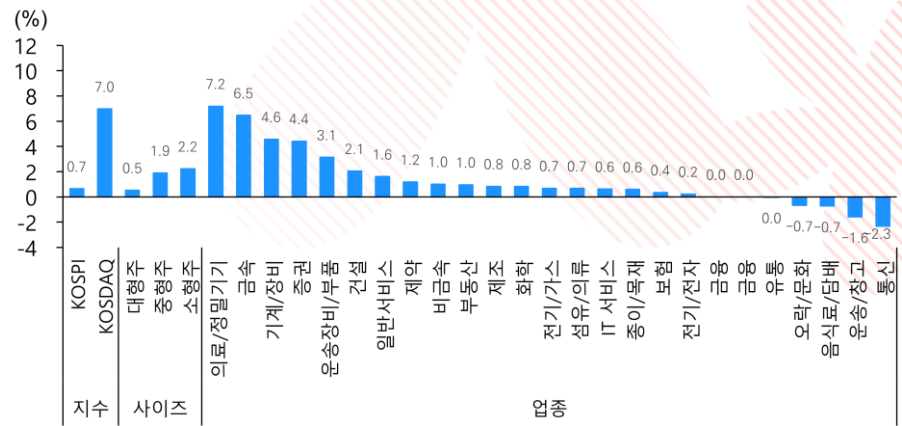
- 금일 KOSPI, KOSDAQ 각각 0.7%, 0.4% 상승. 국내 주식시장은 장 초반 중동 협상 난항과 유가 금리 상승 부담에 약세 보였으나 삼성전자(+4.1%), SK하이닉스(+0.4%) 크게 반등하며 지수 상승 견인
- 반도체 상승 야기한 8월 1~10일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155% 증가한 100억달러. 역대 최대치 경신. 최근 제기됐던 메모리 업황 우려에도 불구하고 수출데이터로 지속해서 증명해주는 중. 엔비디아의 AI 금융 플랫폼에 대한 투자비 부담 우려도 순환금융에 대한 우려로 작용할 수 있으나 AI 인프라 투자 지속에 대한 기대감으로도 해석 가능한 양날의 검.
- KOSDAQ은 최근 상승폭 컸던 바이오, 2차전지 등 대형주 차익실현 매물 출회되며 지수 상대적 부진(알테오젠 -5.9%, 에코프로비엠 -4.4% 등). 그럼에도 7월 31일 이후 8월 7일 제외하고 전거래일 상승. KOSDAQ 순매수 주체였던 개인투자자의 수급 귀환 영향에 낙폭 과대 정상화 지속되는 흐름
- 전략) 7월 31일 이후 지수 일일 상승률 높았던 상위 거래일은 8월 4일 제외 전거래일 외국인이 KOSPI 순매수했던 날. 결국 '수급'이 핵심이고 수급 중에서도 외국인 자금 유입이 현재 KOSPI 강한 반등을 위한 동력임을 재확인. 개인은 앞선 6월까지의 신고가밸리 과정과 유사한 순매수 & 지수 상승 견인 주체가 될 수 없음. 이번주는 미국 소비자물가와 옵션만기 등 변동성 요인 잔존. 7월 비농가 고용에 이어 소비자물가까지 예상치 하회한다면 최근 외국인 순매수 저해 요인이었던 시장금리 급등 완화할 것. 금리 인상은 자본조달 비용과 요구수익률을 높여 AI Capex의 경제성을 낮추는 반면, 물가 및 국제유가 안정은 회사채 발행 부담 완화하고 AI 투자 사이클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 반도체 대형주와 KOSDAQ간의 바벨 전략 여전히 유효하며 금일 상승한 게임, 화장품 등 '호수출-호실적' 종목들은 현재의 물가지표 확인 전 경계감 속 쓸림 완화 종목장세 국면에서 강세 유지 가능

당일 투자자별 순매수대금

(단위: 억원)	KOSPI	KOSDAQ
기관	305	-966
외국인	443	-3,582
개인	-707	4,352
거래대금	215,922	67,534

자료: 인포맥스,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일간 수익률



자료: 인포맥스,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작성자: 이재원)
-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 만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